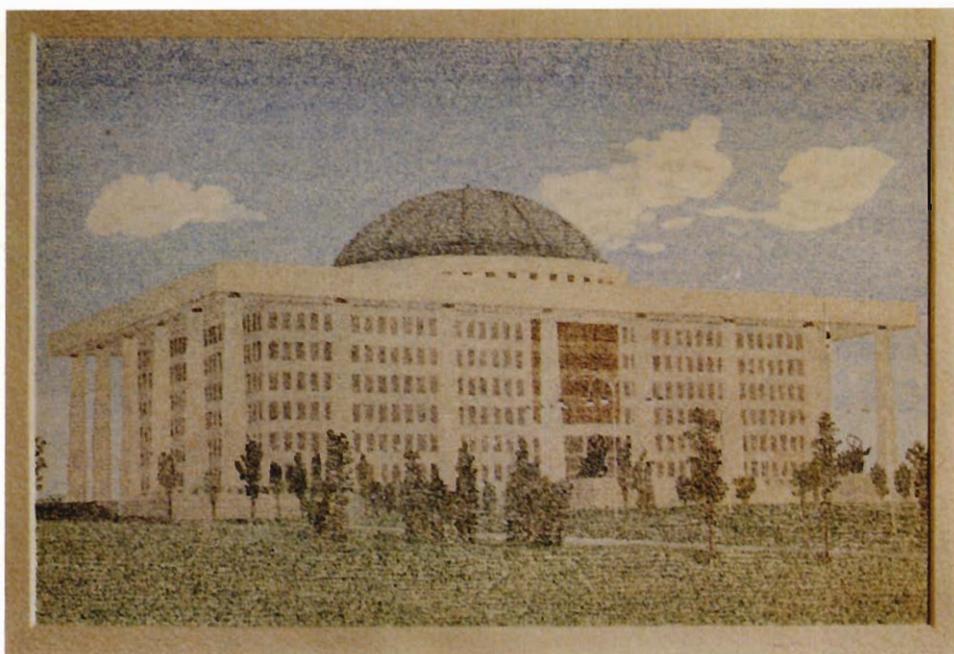


# 速記界

第 29 號



社團  
法人 大韓速記協會

# 速記界

1990-29



社團 大韓速記協會  
法人

〈권두언〉

대망의 21세기를 향하여 ..... 회장 박권흠

—시—

꽃 ..... 이육사

제38차 인터스테노총회

동독에서 배우고 오신 김동 ..... 회장 박권흠

총회일지 ..... 외국어부

독일속기의 장한사 김광스베르 ..... 심의부

□번역

영국하원에서의 속기 ..... 피터 워커

〈쉴터〉 불여우

속기에 관한 상담을 받습니다 / 속기요금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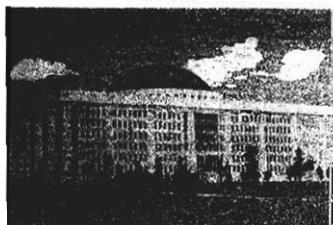
□논단자료

각국 의회의 회의록 발간업무 비교 ..... 외국어부

□ 시	_____
어부이야기.....	장숙경
□ 수필	_____
더불어 사는 세상.....	조미경
속기계 이모저모.....	섭외부
알립니다/원고모집	
편집을 마치고	
회무일지.....	총무부

---

표지그림/속기문자로 그린 의사당 전경  
(1975년 속기과 채강희 작)



〈권두언〉

## 대망의 21세기를 향해



會長 朴 權 欽

會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가지로公私多忙하신 중에 이렇게 자리를 빛내 주신 내빈 및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80年代의 긴 터널을 빠져나와 대망의 21世紀를 향해 1990年代의 門을 활짝 열었습니다. 한 時代의 歷史를 왜곡됨이 없이 사실 그대로 記錄하는 史官으로서 감당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業務가 폭주했던 지난 해는 그만큼 숨겨져 왔던 우리들의 손자취가 값지게 빛날 수 있는 그런 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勞苦를 다시한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제가 速記協會 會長職을 맡은 지도 어느새 10년이 가까와 옵니다마는 89年 東獨 드레스덴에서 열린 第38次 INTERSTENO 總會에 韓國代表로 參加한 本人이 中央委員으로 再選되는 영광을 안게 된 것은 모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은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번 總會에서는 速記 및 業務自動化部門에 관한 최근의 情報를 교환하였으며 여러 會員國 代表들이 모인 자리에서 韓國의 速記制度를 설명하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交流 및 資料提供을 약속하는 등 의미있는 時間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한 會員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88올림픽이후 東歐圈에 확산된 韓國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던 것도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82年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린 35次 總會에서 會員國으로 加入한 후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參加하더니 이번에 새로이 蘇聯까지 參加하므로써 INTERSTENO는 바야흐로 全世界的인 國際民間機構로서 그 자리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 大韓速記協會 會員여러분들의 國際舞台에서의 活動強化를 위한 速記人 자신의 노력은 물론 國家的인 관심과 배려가 아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비록 화려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묵묵히 歷史의 산증인으로서 자기 몫을 다하는 速記人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速記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변함없는 歷史的 召命意識은 바로 우리 韓國速記界 發展의 원천임을 잊지 마십시오.

會員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속에서 會長인 이사람도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일할 것을 새삼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990年 2月16日 第23回 定期總會에서)



# 꽃

이 육사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잖는 그 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갭게 피지 않는가.  
네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북쪽 순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움직거려  
제비떼 까맣게 날아 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한바다 북판 용솨움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 東獨에서 보고 느낀 것들

朴 權 欽 會 長

인터스테노 회장은 東獨,  
총장은 西獨

지난 7월15일부터 21일까지 東獨 드레스덴에서 INTERSTENO(國際速記打字聯盟) 총회가 열렸다. 세계 속기타자문화의 교류와 기능경기를 목적으로 구성된 지 1백년의 역사를 가진 민간 기구인 인터스테노에 大韓速記協會가 가입되어 있고, 대한속기협회 회장으로서 이 기구의 중앙위원으로 돼 있는 필자는 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상황에 있는 獨逸 가운데 共產東獨을 볼 수 있었다. 인터스테노 총회가 이곳에서 열리게 된 것은 東獨速記打字協會가 유치했기 때문이고 東獨速記打字協會會長이 인터스테노 회장이 되어 모든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나는 그 현장에서 여러가지 느끼는 바가 많았다.

만일 이런 행사가 같은 공산국인 북한에서 열렸다면 어떻게 했겠는가.

행사장에 북한기를 달고 심지어 金日成 초상화를 걸지 않았겠는가.

인터스테노 모든 행사장에는 인터

스테노旗 하나만 걸었다.

東獨의 국가 원수의 사진은 행사장 어느 곳에도 없었다. 주행사장인 문화궁전 어느 벽에도 東獨 국가평의회회장 호네커의 사진을 걸어 놓지 않았다.

북한에서 전개되고 있는 金日成우상화와 같은 현상은 이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행사장 마다에서 돋보이는 것은 東獨 회장 스토렐 박사와 서독의 사무총장 구츨러 박사가 사이좋게 앉아 있는 모습이였다. 다같은 분단국가인 오늘의 南北韓 관계를 비교할 때 東西獨의 관계가 얼마나 발전돼 있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나는 東西獨을 대표하는 두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볼 수 밖에 없었다.

총회 마지막날 밤 문화궁전에서 벌어진 화려한 댄스파티에서 東西獨을 대표하는 회장과 사무총장부부가 함께 어울려 춤추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모인 어느 나라대표도 느끼지 못하는 한국 대표만이 갖는 감회가 있었다.

北韓은 걸이로는 대화를 주장하면



서도 속으로는 긴장만 고조시키고 있지 않는가. 특히 북한은 대남공작의 방법으로 南韓사람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 정치선전에 이용하고 남한은 허가 받지 않고 비밀리에 북한을 갔다 온 사람을 모조리 잡아 놓어야 하는 상황하에 살고 있는 필자로서는 하나하나가 예사로 보이지 않았다.

폐회식 겸 시상식날의 모습—속기 또는 타자경기에서 東西獨이, 혹은 금메달 혹은 은메달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발표 될 때 서로 기뻐하며 축하해주는 열기속에는 지난날 냉전시대 東西獨간에 전개됐던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았다.

### 東獨은 黑白, 서독은 칼러

普佛戰爭 승리 후 1871년에 수립된 獨逸계국은 1차세계대전의 패배로 멸망하고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이 탄생되었었다. 1933년에 이르러 국가 사회주의 독일노동당을 만든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하여 제2차 세계대전을 유발, 이에 패전하자 東西獨으로 분단되었었다. 1949년 서방측은 西獨에 獨逸연방공화국을, 소련측은 東獨에 獨逸民主 공화국을 수립시켰다. 西獨은 自由民主主義國이었으며, 東獨은 共產主義國이 되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은 美·英·프랑스·소련의 공동 관할하에 두고 있는데, 소련 관할하에 있는 東베를린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싫어해서

西베를린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東西 베를린 경계선에 높은 장벽이 세워졌고, 그 장벽을 넘어 자유를 찾으려다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았었다.

동독은 지난날 국경을 넘어 서독으로 탈출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총을 쏘아 죽였으나, 요즘에는 총을 쏘지 않는다고 한다.

필자는 지난 86년 서독을 여행한 바 있는데 3년만에 동독을 여행할 기회를 갖게 되어 東西獨을 피상적으로나마 비교할 수 있었다.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공항을 떠나 라이프치히로 오는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나, 라이프치히 공항에서 드레스덴市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릴 때나 이 나라 국토는 산이라고는 볼 수 없는 끝없는 밀밭과 감자밭이었다. 이렇듯 풍요한 농토를 가진 동독은 경제적으로 잘사는 나라의 모습을 보여야 할텐데 웬일인가…… 3년 전에 서독을 본 印象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나타났다. 西獨이 칼러화면이라면 東獨은 흑백이다. 지붕은 모두 검거나 짙은 회색뿐이고, 西獨에서 본 붉고푸른 다양한 색깔이 없다. 드레스덴시는 2차대전때 피해가 많았다는 공통점 때문에 日本의 원폭피해도시 廣島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드레스덴市에는 아직도 복구되지 못한 폐허가 시내 곳곳에

보였다.

시내에 상점이 있으나 살만한 물건은 없고 진열된 상품을 보자고 하면 진열품밖에 없다고 한다.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전차가 있을 뿐, 택시는 타기 어려운 실정이다. 상점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은 물건을 팔겠다는 의욕을 보이지 않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이다. 매상고를 올리거나 말거나 자기이해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품이 부족하니 재고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택시 운전사가 열심히 돌아다녀야 택시를 탈 수 있을텐데……. 택시 운전사는 열심히 뛰여보았자 자기 소득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自由競爭의 원리, 市場經濟의 원리 그것이 없는 공산 사회의 활기 없는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다.

### 자기 나라 돈 받지 않는 호텔

자유세계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은 호텔에서 東獨의 화폐를 받지 않는 일이다. 호텔에서 1백달러를 동독화폐로 교환했는데, 그 돈으로 그 호텔안의 가게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니, 동독 돈은 받지 않고 미국달러나 서독 마르크만 받는다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동독의 마르크화는 동독이외 어느나라에서도 통용되지 않지

때문이라고 하나, 그렇다고 자기 나라 돈을 받지 않는 호텔이 그 나라에 있다는 사실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 엄청난 경제적 패배주의를 보고 동독의 경제적 현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동독은 서독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고 있으며, 미국 등 서방국가에 대해서도 경제적 SOS를 보내고 있으면서도 그들 스스로 외화를 벌 방법을 강구하지 않는 것 같다.

관광객들은 많이 모여들고 있다. 특히 日本의 관광객이 많이 눈에 띄었다. 그런데 막상 관광현장에는 관광객의 호주머니를 자극할만한 기념

품 하나 제대로 진열해 놓지 않고 있다. 기념엽서 한장 사려해도 줄을 서야 하는 불편만 주고 있을 뿐이다.

### 배워야 할 東西獨의 統一學

東西獨은 70년 3월부터 통일협상을 개시, 72년 12월에 기본조약을 체결했고, 이 기본조약에 따라 73년 9월 東西獨이 同時에 유엔에 가입했다. 그리고 74년 6월 쌍방수도에 상주 대사관을 개설함으로써 평화공존 관계를 수립하였다. 79년 10월에는 東西獨間 자유왕래를 보장하는 협정을 체결했고, 83년부터는 西獨이 東



▲ 東獨 스트레프 회장(앉은 분), 西獨 구출러 사무총장(右), 필자(左)

南北韓은 피비린내 나는 6·25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엄청난 적대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나 東西獨은 직접 전쟁을 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찍이 共存의지를 가지고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극복하였지만,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독재체제를 고수하는 북한은 지금도 共存 아닌 赤化통일을 고집하고 있으니……

獨에 대하여 저리차관을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84년 11월에는 東獨이 西獨과의 국경에 설치해 둔 기관총을 철거하였다. 87년 9월 東西獨 정상회담은 경제협력을 위한 합동경제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하기에 이른다.

우리의 南北韓간의 統一과정도 이와 같은 東西獨의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東西獨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되는가? 東西獨과 南北韓은 分斷 그 자체는 같으나, 그 역사적 배경과 현실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독일은 戰犯國으로 또 다른 戰犯을 막기 위해 분단되어야 마땅했으나 한국은 전범국이 아니라 전쟁 패배국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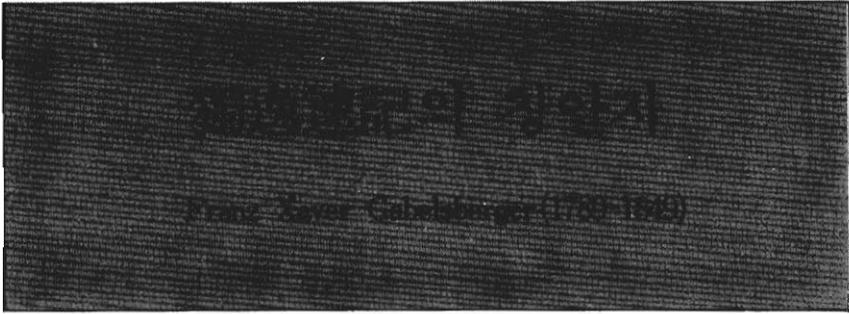
분단된 것이다. 日本이 戰犯國으로서 歷史적인 죄값을 치러야 할텐데, 그러지 않고 영동하게 한국이 분단됐으니 천추에 씻을 수 없는 억울함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南北韓은 피비린내나는 6·25戰爭을 치루어 엄청난 적대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나 東西獨은 직접 전쟁을 한 관계는 아닌 것이다. 東獨은 일찍이 共存意志를 가지고 이데올로기의 장벽을 극복하였지만,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독재체제를 고수하는 북한은 지금도 共存 아닌 赤化統一戰略을 고집하고 있으니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南北韓은 東西獨에서 統一學을 배워야 할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 제38차 인터스테노총회 참석보고

1. 기간 : 1989. 7. 15(토) - 7. 21(금) (7일간)
2. 장소 : 동독 드레스덴
3. 한국측대표 : ○박권홍(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회장. 도로공사이사장)  
○김난옥(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회원. 회장부인)
4. 참가국 및 인원 : 30여개국(22개언어권) 800여명
5. 중앙위원회 주요 회의내용
  - 가. 차기총회개최국  
○벨기에 부뤼셀(1991년)
  - 나. 차기중앙위원회 개최국  
○유고슬라비아 브리오니섬(1990년)
  - 다. 사무총장  
○구출러 박사(서독)유임
  - 라. 새중앙위원 선출  
○한국 박권홍위원(재선), 신규 소련, 아르헨티나 피선
6. 성과
  - 가. 속기 및 사무자동화 부문에 관한 최근의 정보교환 및 의회속기 제도에 관한 각종 연구발표 청취
  - 나. 한국의 속기제도를 각국 대표들에게 설명하고 앞으로의 지속적인 교류 및 자료제공을 약속
  - 다. 개최식 기조연설, 각국대표 및 중앙위원과의 면담을 통하여 88올림픽 이후 특히 동구권에 확산된 한국의 새로운 인식을 재확인 시켰음.
7. 기타사항
  - 가. 인터스테노 총회는 개최국의 국가적인 행사이며 이번 38차총회의 경우 동독문교부장관이 호스트임.
  - 나. 차기 중앙위원회는 유고 티토대통령의 별장에서 열림
  - 다. 아시아에서는 기 일본에 이어 한국이 두번째로 그리고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참가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로이 소련이 참가함으로써 전세계적인 조직체로 급속히 확장되어 가고 있음.
8. 건의사항  
인터스테노 총회는 속기, 타자인들의 모임인 바 속기사는 특히 서구 및 동구권의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총회는 당해 개최국의 국가적 행사로서 한국에서 보는 시각과는 상당히 다른 차원에서 치뤄지고 있음.  
이제 한글도 기계속기가 상당 수준 가능하게 된만큼 좀더 국제무대에서의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속기인들 자신의 노력은 물론 국가적인 관심과 배려를 필요로 함.



Franz Xaver Gabelsberger는 1789년 2월9일 München(뮌헨)에서 다섯남매중 세번째로 태어났다.

Gabelsberger(가벨스베르거)는 집안살림이 경제적으로 풍족한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받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남보다 앞서 노력하려는 자세를 보였고 부지런하고 친절한 성품으로 모든 일에 주도면밀하였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그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특히 Gabelsberger는 어릴 때부터 글솜씨가 뛰어났기 때문에 문자나 문장 등에 관심이 많았고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짧은 기간이었지만 作家로서 일하기도 하였다.

1823년 Gabelsberger는 Bayern 內 務長官의 비서로서 일하게 되었으나

Ludwig I(루트비히 I세)가 즉위한 후에 그의 검약정책때문에 많은 公務員들이 해고를 당했고 Gabelsberger도 역시 이러한 불행을 당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그의 유능함 때문에 조금후에 다시 채용이 되었고 다양한 관리직에 종사하게 되었다.

München에서는 특히 그의 신망이 높았다.

시간이 날 때면 그는 문자에 대한 연구에 몰두했다. 문자에 대한 폭넓은 연구과정을 통해서 그에게 일반적인 速記를 만들어 내려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었다.

속기를 처음 생각해내게 된 동기에 대해서 그는 그의 主著 "Anleitung zur deutschen Redezeichenkunst oder Stenographie"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무슨 동기로 나만의 속기방법을 고

안하게 되었는지 알기를 원한다. 그러나 1817년 내가 여러가지 생각으로 速記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나는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을 동시에 받아적을 수 있는 기법이나 여러가지 사건들 중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단지 빨리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내서 좀더 나은 公務員으로서 직무상의 일을 줄여보려는 의도 외에 다른 목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가 이와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의 큰 사건이었다.

1818년 Bayern에서 憲法의 창시와 함께 1819년 소집되어진 Bayern 지방의회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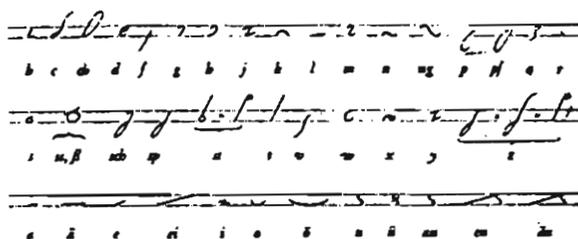
입에서부터 흘러나온 말들을 곧바로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었고 그

것이 Gabelsberger의 발명가적 기질을 자극하게 되었다. Gabelsberger는 公務員으로서 일을 하면서 速記法에 대한 연구작업을 하였는데 그는 한 글자의 부분 부분을 속기부호로써 이끌어 내었다. 이렇게 하나의 부호로 한 글자를 표시함으로써 새로운 速記法을 만들어냈다.

1819년 Bayern지방의회가 처음으로 소집이 되었을 때 Gabelsberger는 이미 그의 문자체제를 국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시험할 정도로까지 발전시켰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 그래서 Bayern 지방의회가 速記의 중요성을 깨닫고 1822년 Gabelsberger와 그의 첫번째 제자인 Joseph Zeiler를 속기사로서 채용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극복해야 하였다.

Gabelsberger는 축약해서 쓰는 기법을 실용화하기 위해서 많은 말들

Gabelsbergers Schrift baute sich 1824 auf folgenden Zeichen auf:



을 速記로 받아적었다. 특히 Bayern 內務長官의 비서로서 長官이 이야기 하는 것을 받아적었을 때 많이 활용을 하면서 그의 문자체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는 가장 많이 나오는 소리를 잘 알려지고 익숙한 부호로 표시하였는데 1829년에는 그의 독창적이고 간단한 속기법으로 인해 München의 자연과학대학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

이 시기에 그는 大學에서 그리고 技術高等學校에서 속기강의를 하기 시작했다.

1831년에는 지방의회 일을 하기 위해 10명의 제자들과 함께 속기사무소를 만들었다. 이 시기이후부터 독일어를 사용하는 모든 지역에서의 議政活動中에서 그 시대에 일어난 중요한 事件의 記述者로서 速記士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834년은 獨逸 速記史에 있어서 큰 분기점이 되었다.

Gabelsberger는 17년간의 작업끝에 「Anleitung zur deutschen Redezeichenkunst oder Stenographie」라는 제목으로 속기교재를 만들어냈다.

그 자신의 私財로 출판해야 했던 이책은 560페이지 정도이며 가장 방대한 속기교재로 속기의 역사적인

부분과 실용적인 부분이 두편으로 나뉘어 명시되어 있다.

그의 일의 성과는 점점 더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 그의 제자들은 점점 늘어나게 되었으며 Gabelsberger는 특히 의회속기의 완성에 몰두하였다.

그리고 1838년에는 “Stenographische Lesebibliothek”이라는 책을 발행하였는데 이것은 전부 속기글자로 인쇄된 첫번째 책이었다.

이렇게 1834년과 1838년에 출판된 출판물과 함께 Gabelsberger는 탁월한 창시자로서 그의 명성을 굳건히 해 나갔고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도 또 그가 죽은 후에도 Sachsen(작센)에서 Österreich(오스트리아)에서 그리고 Bayern(바이에른)에서 속기강습소가 세워졌고 獨逸 전 지역에 Gabelsberger-동맹이 만들어졌다.

1835년 그의 제자인 Franz Jakob wigard가 Dresden(드레스덴)에서 속기강습소를 세웠고 1842년에는 Heger가 Wien(빈)에서 속기강습소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1854년 Bayern 중학교에서는 Gabelsberger-속기가 필수과목이 되기도 했다.

Gabelsberger는 혼자 생각으로 公職生活 40년이 되는 1850년 10월에는 퇴직을 하고 계속해서 속기법을 연구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는 바로 1834년에 발간한 “Anleitu-

ng zur deutschen Redezeichen Kunst oder Stenographie”의 수정작업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1849년 1월4일 갑작스러운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창조력 풍부한 Gabelsberger의 삶은 끝을 맺게 되었다. 그가 죽은지 며칠 뒤에 München에서 그의 제자들이 모였고 1849년 1월9일에 Gabelsberger-속기중앙협회를 창립했다. 그리고 그가 하던 연구를 계속해서 “Anleitung zur deutschen Redezeichen Kunst oder Stenographie”를 새롭게 출판함으로써 작업을 마무리했다.

더불어 그가 하던 일을 계속해 나가는 것, 그의 속기방식을 보다 발전시키고 장려해서 무엇보다도 널리 보급하는 것이 이제 그의 후배들이며 제자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되었다.

Gabelsberger가 죽은 1849년부터 큰 도시에서는 Gabelsberger식 속기클럽이 만들어졌고 1914년에는 그것이 무려 2,771개에 회원이 13만1,000명이나 되었다.

훗날 여러가지 발전된 속기법을 만들어낸 사람들도 대개는 Gabels-

berger가 창안한 속기부호에 기초를 두었기 때문에 Gabelsberger가 獨逸速記의 창시자로 불리우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첨단과학문명이 발달한 현대 산업 사회에서도 速記의 중요성과 速記의 유용함은 확실히 인정되는 것이다.

제38회 Intersteno 會議 참가자들도 그들이 이룩한 성과와 함께 이러한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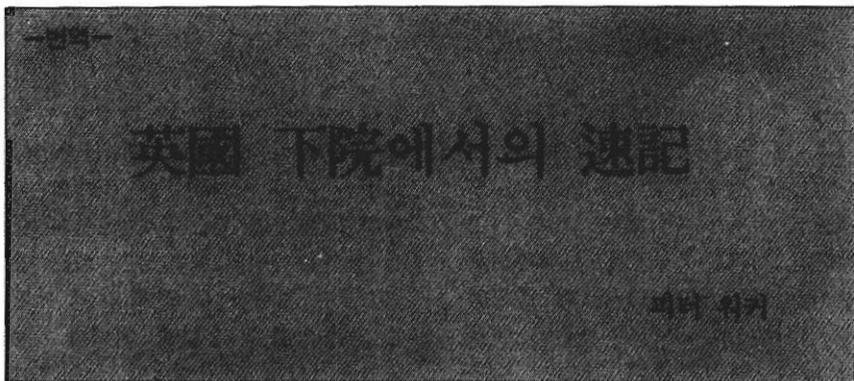
獨逸에서도 速記士로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신기술·최신장비에도 불구하고 많이 열리는 중요한 會議場에서 폭넓은 활동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러한 입장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 모든 會議席上的 여러가지 의견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표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 速記가 유용하게 쓰여지게 될 것이다.

—제38회 Intersteno 홍보물  
“Franz Xaver Gabelsberger”  
편에서—

(번역 문 선 회)





어느 議員이 능력있는 발언을 했다고 생각하며 자부심으로 삼기된 채 「한사드」<sup>1)</sup>라는 下院內 速記室로 가서 속기사들이 어떤 식으로 그의 말을 받아 적었는지 보면 의석에서 자기가 발언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언내용은 議會速記錄의 참고자료가 된다.

下院의 여섯 부서 중의 하나인 속기국의 업무는 本會議 및 委員會의 사진행과정을 요약 보고하는 것이다. 14~15명의 속기사들이 일정에 따라 일하고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 의회는 오후 2시반에 시작된다. 그 전통은 거슬러 올라가 1888년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 뿌리는 역사적으로 더 멀리 "Rural Rides"로 명성이나 있는 「윌리엄 코베트」시대로 부터이다.



▲ 영국의사당 전경

(註1) 英國 議會의 속기국은 「한사드」속기사에 의하여 작성된다. 「한사드」는 곧 速記錄公報의 대명사로 일반인들은 이것을 議會速記錄으로 알고 있으며, 이 명칭의 유래는 1803년에 시작되어 1889년에 의회의 속기국간행이 문서국으로 인계되기 까지 私企業의 형태로 速記錄을 발간, 판매하여 온 「한사드」家에서 따온 것이다.

**금**세기 초 속기사들의 사진을 보면 높은 것 그리고 화사한 콧수염이나 턱수염을 기른 중후한 모습들로 여자는 단 1명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회변천을 잘 반영하듯 하원 테라스에 품위있게 전시된 속기사들의 사진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많다.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속기사로 진출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인 현상이다.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회생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떤 직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의회속기사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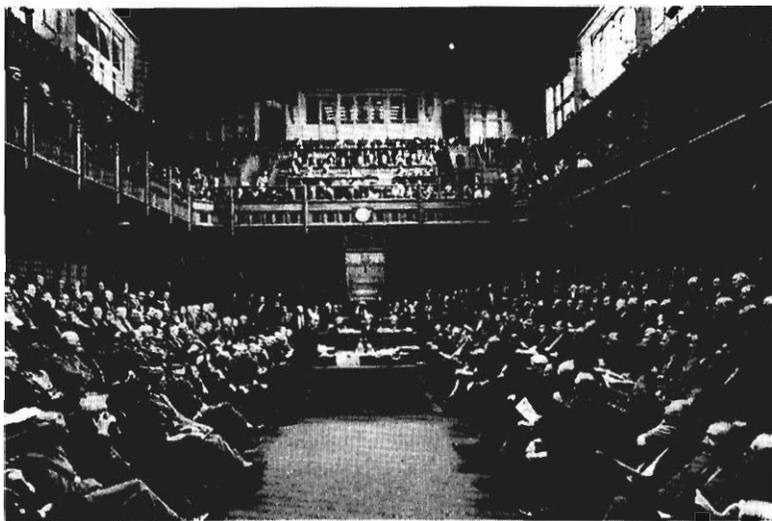
**회**의일정은 대개 오후 2시반에 시작한다. 자정전에 그날 회의가 끝나는 경우는 드물고 밤을 새우거나 다음날까지 연장되기도 한다. 그리고 한정된 인원 때문에 교대체제가 없어서 밤을 새운 직원이 다음날도 계속 일해야 한다.

委員會는 오전 10시반에 개의되어 점심시간까지 계속되고 보통 오후 4시에 속개되어 밤늦게까지 계속된다. 이런 위원회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때로는 수요일에도 열린다.

이러한 업무를 사무보조를 포함하여 약 90명의 직원이 수행하려면 거의 설움이 없다. 대부분의 다른 모든 직업처럼 일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 때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에 3~4개 위원회가 열렸으나 지금은 오전에는 보통 10개 위원회가, 오

후에는 5개, 때로는 밤 늦게도 1~2개 위원회가 열린다. 1970년대부터 그런 증가가 시작됐는데 종래의 위원회 기록방법 즉, 두시간 반의 오전 회의를 5명의 속기사가 쓰는 방법으로는 지탱할 수 없게 되어 현재는 녹음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두 고참속기사가 위원회실에 들어가서 직접 속기는 하지 않고 녹음을 하면서 회의진행상황을 일지나 요약집에 기록하여 그것을 주기적으로 모아 녹음테이프와 함께 녹음번문사에게 준다. 그러면 번문사는 녹음된 내용을 일지로 보며 번문(활자화)하게 된다. 그 번문된 원고는 주임속기사에 의해 가편집되어 인쇄실로 넘겨진다.

**전**통적으로 의회속기사들은 주로 언론계나 속기계로부터 채용되었다. 금세기초, 「한사드」 초창기 때에는 議會記者團이 부업으로 이런 속기업무를 맡았으나 그 후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의회기자들로 속기사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다. 속기사 충원 문제는 연령적으로 불균형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했다. 일단 「한사드」에 채용되면 그대로 늘려왔는 경향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한동안 직원들이 20년 혹은 30년동안 속기국에 머물렀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남자들로 주로



▲하원 회의 광경

구성된 때가 있었다. 그러나 「한사드」속기사들도 정년에 이르러 퇴직을 해야 했고 「한사드」도 이러한 무더기 은퇴에 대처해야만 했다. 오늘날 議會速記士 수준에 이르고 있는 속기술을 체득한 언론인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신문들은 더 이상 의회발언칼럼을 발간해 내지 않기 때문에 속기를 배울 필요가 없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인용구절을 받아적는 능력이고 녹음기를 사용하여 될 정도는 아닌 것이 보통이다.

**언**론계와 외부 속기회사가 더 이상 우리가 필요로 하는 속기사를 공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

고 우리는 처음으로 훈련과정을 시작했다. 젊은 졸업생 4~5명을 선발해 그들에게 Pitman의 새 이론을 가르쳤다. 그런 다음 그들을 런던에 있는 Pitman단과대학에 속도훈련을 하도록 보냈다. 그 훈련과정은 교사를 고용하여 의회내 교육을 시작하자 향상되었으며 몇년동안 지속되어 몇명의 잘 훈련된 속기사들을 배출했으며 최소한 180단어를 속기할 수 있다.

**그**즈음 우리는 CAT<sup>2)</sup>에 관해 소식을 듣기 시작했다. 속기기계에는 적어도 두가지 매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했다. 하나는 속

기를 배워 실용단계 수준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컴퓨터를 이용한 번문으로 인쇄하는데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것 같았다. (후자는 아직 실용화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의 Pitman선생은 퇴조했고 Steno(속기타자)와 친밀해졌다. 「한사드」에 신기원이 열렸다. 「스테노」는 훈련주기가 Pitman식보다 매우 짧다는 것을 발견했다. 6개월의 집중훈련 후 대부분은 160단어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고 그 중 일부는 180단어 수준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속기에 대해 아는 사람은 180단어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은 速記士가 되는 과정의 일부에 불과함을 알 것이다. 초보자에서 훈련된 속기사가 되는데 최소한 6개월, 보통은 1년이 걸린다. 속기사는 量으로 재기에는 끈란하나 기술, 적성, 지능, 담대함, 결단 등이 혼합된 그런 능력이 필요함을 우리 모두 깨달을 수 있다. 신참 속기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갈지 신참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나 속기국 직원들은 안다. 그런 과정을 우리 모두가 겪었기 때문이다.

**지** 난 25년을 돌이켜 볼 때 내가 기억하는 한 함께 일하면서 빼

놓은 구절, 잘못 청취한 구절, 잘못 이해한 생각, 오식된 원고 등 뭔가 잘못되었을 때 자신감이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결국 많은 말들을 다 루어보면서 점점 이해도가 넓어져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 동안의 대부분의 議事進行은 다음 날 인쇄되기 때문에 직원들은 항상 번문일정을 지켜야 하는 압박감이 있다. 速記士는 議會에서 의장석 바로 위에 위치한 의회기자단 석에 앉아 약 5분내지 10분을 기록하고 그것을 즉시 타이피스트에게 불러준다. (약 10분 가량의 속기는 30분 이상의 번문시간을 요한다.) 타자쳐진 원고를 가지고 주임속기사실로 가면 사실, 인용, 성명, 날짜, 언급된 법조항 등이 꼼꼼히 체크된다.

우리는 다행히 발언의원에게 발언 원고 및 인용문을 요청할 수 있고 문의할 수 있다. 최후수단으로 우리는 발언의원을 오시게 해서 발언내용을 읽어 보시도록 한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자주 이용되는 방법은 아니다. 어떤 의원들은 자신의 발언을 읽어 보기 위해 나타나나 소수에 불과하다.

(註2) CAT는 Computer-Aided Transcription의 약칭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번문을 말한다.

속기사가 각자 속기한 부분을 빈 문한 원고는 부편집장에게 넘어가는데 그의 임무는 부분이 아닌 총괄적인 발언내용을 읽음으로써 철자나 문법에 마지막 손질을 할 뿐만 아니라 미처 보지 못한 해석이나 의미의 오류를 교정한다. 그런 후 원고는 인쇄소에 보내어져 인쇄된다. 「한사드」속기사는 다음날 의원들의 아침 식탁에 전날의 회의록을 올리는데 궁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분명 역사의 새로운 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기록방법도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30대 초반에 발을 들여 놓아 65세 정년퇴직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할 숙련된 30대 초반의 속기사를 더 이상 채용할 수 없을 것이다. 조만간 속기사의 정년이 60세로 바뀔 것이 분명하다. 사회의 변화를 조망할 때 「한사드」도 변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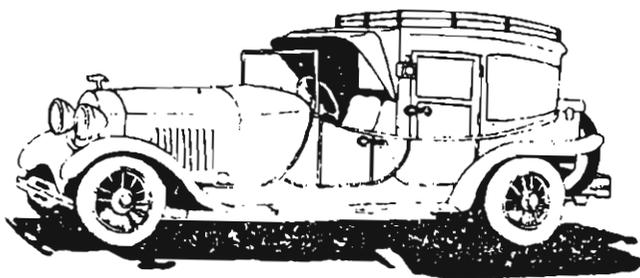
해야 할 것이다.

아무런 의심없이 시간의 근무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들은 다양한 생활방식을 추구할 것이며 시간의 근무수당에 현혹되어 추가로 일하고자 하지 않는다. 직원 중에는 여성들이 많은데 일부가 가정을 돌보기 위해 잠정적으로 떠남에 따라 업무패턴은 바뀌기 마련이다. 이미 일주일의 반만 일하는 속기사도 있다. 게다가 우리는 CAT에 대처해 나가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이 모든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議會가 개최 중에 있는 한, Big Ben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는 한, 議員들의 발언내용은 어떤 형태로든 「한사드」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번역 : 김은숙. NSR 1988년 12월호에서)



\*피터 워커(Peter Walker)는 전직 신문기자 출신의 영국 하원의 속기사.

## 불여우



옛날 어느 대감들의 모임에서 한 대감의 별명이 하필이면 「여우」로 불리우게 되었다.

모이면 서로 농담으로 웅대하는 터라 꼴을 낼 수도 없는 처지여서, 말하자면 일종의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어떤 고약한 놈이 그렇게 지었는지 내 그놈을 알기만 하면 그냥 두질 않겠는데.) 하고 버리기만 할 뿐 앉은뱅이 용쓰기로 소용 없는 노릇인지라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는 별 수 없이 허허하며 여우대접을 감수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차라리 늑대나 너구리 또는 산돼지라면 모르겠는데 여우라는 것은 어떤지 인격에 대한 모독감같은 것이 느껴져서 썩 기분이 좋질 않았다.

漢字로 如愚라고 써놓고 보면 제법 아취가 있어 보이나 그놈의 발음이 여우고 보면 별로 좋은 것이 못되었다.

그렇다고 내색을 했다가는 웅졸한 인간으로 취급될 것이며, 심술궂은 친구들이 한층 더 좋아서 떠들테니 이거야말로 병여리 냉가슴만 앓는 수밖에 별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한 친구가 이런 제의를 해왔다.

「자네 별명이 몹시 못마땅한 모양인데, 우리 앞으로 자네 별명을 부르지 않기로 하겠네.」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 귀가 번쩍 띄어, 「거, 정말인가?」하고 다그쳤다.

「암, 정말이지. 친구 좋다는 게 다 뭔가? 그래서 우리가 의논한 걸세. 자네 고민거리를 들어주자고 말이야.」

「그런데 한가지 조건이 있어.」

「한턱 잘 쓰라구. 세상에 공것이 어디있나?」

대감들이 돌아가며 한마디씩 지껄이자 여우대감은 좋기만 해서 한턱 잘 쓰겠다고 서슴없이 약속했다.

그리하여 여우대감이 진수성찬을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놓고 입심사나운 친구들의 입을 틀어 막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어, 잘 먹었다.」 한 친구가 용트림을 하면서

「오늘부터 이 집 주인대감은 여우가 아니니까 그리 알고 안여우라고 부르면 어떨까?」하고 수작을 붙이자, 딴 친구가 얼른 받아서

「그래, 그래. 여우가 아니니까 아닐 不字를 붙여서 불여우(不如愚)라 하는 게 좋겠군」

## 속기에 관한 상담을 받습니다. (Counselling of Shorthand)

국어 및 영어 속기관계자료, 학습, 청탁등 속기에 관한 모든 문의는 본 협회섭외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할 것이오니 회원제위와 속기에 관심이 많은 분은 널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소(Counsellor) : 본협회섭외부      Tel 788-2474, 2476

## 속기요금안내

1989. 2. 1 시행

속 기 기 본 료	1 시 간 당	150,000원
녹 음 재 생	〃	160,000원
전 문 분 야	〃	180,000원
외 국 어 속 기	〃	200,000원
요 점 속 기	〃	100,000원

- 1시간 미만의 기록시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총속기요금의 40% 이상을 계약금으로 받은 후 번문에 착수한다.
- 지방 출장시에는 상기 요금외에 일체의 비용을 의뢰자가 부담한다.
- 요지작성료는 상기 요금외에 매시간당 15,000원씩 가산한다.
- 이 요금표의 적용은 1급 및 2급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한다.

## 사단 법인 대 한 속 기 협 회

# 各國 議會의 會議錄發刊業務 比較

## 1. 發刊形態

### 가. 議事錄과 速記錄

會議記錄을 어떠한 형태로 남기느냐에 따라 議事錄과 速記錄으로 구분하고 있다. 議事錄은 議事結果에 중점을 두고 日時, 場所, 參席者, 會議結果 등 요점만을 간추려서 기록하는 것이고 速記錄은 議事內容을 一言一句 빠짐없이 기록함은 물론 會議狀況까지도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다.

대부분 국가의 議會에서는 會議記錄을 남김에 있어서 議事錄에 만족치 않고 速記錄 形態로 발행하고 있다. 이는 議會가 기록을 남기는 목적이 첫째, 국민의 대표가 모인 議會의 活動狀況을 그들의 主權者인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기 위해서이고 둘째, 議事進行 過程이나 審議決定 事項에 의해서 爭訟이 있을 경우 증거가 필요하고 셋째, 會議錄을 참고

함으로써 다음 會議에 대비할 수 있고 넷째, 會議記錄을 통하여 決定事項의 배경을 압으로서 해석의 명확을 기할 수 있으며 다섯째, 會議記錄은 후세에 이 시대의 상황을 전해 주는 역사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會議錄發行 目的에 비추어 볼 때 議事錄보다는 速記錄이 그 효용성이 높음은 두 말한 나위도 없다. 그러나 速記錄은 분량이 방대함으로 간략히 내용의 要點을 파악하는 데는 議事錄이 더 유용한 경우도 있다 하겠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速記錄 形態로 議會記錄을 남기고 있는 가운데도 議事錄을 병행하여 발행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우리나라도 制憲國會부터 第5代國會初까지는 議事錄과 速記錄을 병행하여 발행해 오다가 그후부터 이 둘을 합하여 會議錄으로 발행하고 있다. 이는 速記錄이 아무리 會議狀況을 빠짐없이 記錄하고 있다 하더

라도 議會의 記錄을 남김에 있어서  
는 會議狀況 이외에도 議員變動狀  
況, 書面質疑應答, 參考文書 등 揭  
載事項이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는 國會公報를 발행함으로써 會議錄  
의 비대합에서 오는 요점파악의 難  
點을 해결하고 있다.

#### 나. 臨時會議錄과 正規會議錄

各國 議會의 活動狀況은 그 나라  
국민들에게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으므로 즉시적으로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으나 보도내용으  
로는 충분치 못하므로 會議錄을 가  
급적 빨리 발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알리고 議員을 비롯한 利害 當事者  
들에게 배부하여 參考하게 한다.

그러나 會議錄의 발행은 速記 翻  
文 打字 編輯 校正 印刷 發言者確認  
會議主宰者確認 등 여러 과정을 거  
치자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게 마  
련이다.

따라서 歷史的 保存文書로서 후일  
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면 제본까  
지 한 正規會議錄을 시간을 가지고  
제작하여 발행하겠지만 신속히 열람  
하기 위한 會議錄은 會議當日 또는  
翌日까지는 발행해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各國에서 會  
議錄이 간행되는 여러가지 양상을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 會議에서  
행하여진 發言과 決議의 내용을 요  
약한 要約會議錄이 會議開始 30분후  
부터 발간되기 시작하며 完全會議錄  
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發言要旨가  
수록되는 分析會議錄이 會議開始 1  
시간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다. 이  
두 會議錄은 로비에 전시됨으로써  
議員등 會議關係者와 보도기관에 參  
考用으로 제공된다. 또한 완전한 내  
용의 正規會議錄도 會議翌日까지 발  
행되며 일정량의 會議錄을 모아 製  
本會議錄도 발행한다.

正規會議錄을 발행하기 전에 우선  
신속하게 필요한 용도에 제공하기  
위해서 발행되는 會議錄을 臨時會議  
錄이라고 하며 臨時會議錄을 발행하  
는 형태는 프랑스와 같이 요약하는  
방법도 있고 一部國家에서는 翻文打  
字된 原本을 正式印刷에 부치기에  
앞서서 등사하거나 복제하여 발행하  
기도 한다. 이 原本은 아직 수정되  
기 전이기 때문에 草橋會議錄이라고  
도 한다.

草橋會議錄이 발간되는 國家는 오  
스트리아 캐나다 체코슬로바키아 핀  
란드 인도 이스라엘 이태리(상원)  
네팔 아랍공화국 유고 등이며 우리  
나라는 正式印刷된 臨時會議錄을 會  
議翌日까지 발행한 후 修正要求를

받아들여 正規會議錄을 발행하고 있다. 한 會期가 끝난 후에는 會議錄을 제본하며 이 製本會議錄은 한 會期 또는 2~3個 會期分이 合本되기도 하고 분량이 많은 會期는 分券하여 製本되기도 한다.

#### 다. 修正과 削除

모든 나라의 議會에서 議員과 國務委員등 발언자가 會議錄이 인쇄에 들어 가기 전에 자신들의 연설을 읽고 교정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速記士 또한 發言者가 확실하게 잘못 발언한 숫자라든지 말의 실수를 교정할 수 있으며 쓸데없는 말이나 중복된 말을 삭제하여 翻文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정은 발언의 뜻과 내용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發言者는 아직 速記士가 이러한 범위내의 교정을 하지 않았다면 스스로 교정을 하는데 있어서 갖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翻文된 原稿는 즉시 인쇄소로 보내져야 하기 때문이다. 發言者는 草稿會議錄을 받아보고 교정할 수도 있으며 인쇄된 會議錄을 보고 교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최종 印刷 製本會議錄에 반영되며 그 이후의 교정은 다음 號에 正誤表로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교정의 범주를 벗어나 訂正에 해당되는 修正의 경우는 院議 또는 議長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나라도 있다. 캐나다 下院에서는 실질적인 訂正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주지시키기 위해서 本會議에서 議決을 받는다. 日本은 會議錄配付日 翌日の 오후 5시까지 訂正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訂正에 대해서 異議를 제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議長은 院議에 부치게 되어 있다. 美國은 비교적 자유롭게 訂正이나 敷衍을 할 수 있는 바 관례적으로 院에서 허가하고 있다.

院에서 행한 발언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삭제할 권한을 議長이 行使하는 國家는 호주 벨기에 프랑스 인도 일본 룩셈부르크 체코 네덜란드 화란 아랍공화국 유고슬라비아 미국 등이며 議長의 許可없이 한 發言, 發言時間超過發言 院의 품위를 손상한 만한 發言 등에 대하여 削除權이 행사되고 있으나 削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院議에 따르기도 하며 체코의 경우는 議會의 幹部會議에서 결정한다.

## 2. 組織과 人員

### 가. 院의 構成과 速記課

兩院制를 택하고 있는 나라, 單院制를 택하고 있는 나라, 本會議中心國會, 委員會中心國會 등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議會制度에 따라 會議錄 發刊業務를 담당하고 있는 速記課의 位置 組織 人員 責任者 등이 다르다.

兩院制를 택하고 있는 國家 중에도 速記課가 들어 있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하나의 速記課에서 兩院의 會議錄을 모두 발행하는 나라도 있다. 應答國家 중 14個國이 兩院制였으며 그중 호주 아일랜드 화란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5個國은 兩院을 위해서 하나의 速記課가 있으며 아르헨티나 벨기에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미국 등 9個國은 上·下 兩院 모두 다 速記課가 있다.(表1)

速記課가 議會補佐機構上에서 어떠한 위치에 있으며 누구의 책임 아래 있는가 速記士의 任免과 課運營 責任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各國마다 議會立法補佐機構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분류가 어렵다. 그러나 速記課는 會議錄 發刊業務의 중요성과 관

련해서 議會의 여러 조직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대개 事務總長 또는 議長의 직속하에 있다. 직원에 관한 결정은 速記課의 長이 하지만 速記課의 長은 대개 議長이 임명한다. 速記課의 長은 速記課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 나. 人員構成

대부분의 速記課는 長이외에 編輯員 校正員 古參速記士 速記士 修習速記士가 있으며 翻譯士 錄音技士 打字手 등이 있다.(表1)

벨기에 화란 핀란드 캐나다 파키스탄 스위스같은 나라들은 2개의 公式言語를 사용하기 때문에 2개의 公式言語를 잘 하는 速記士들을 모두 확보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佛語 速記士의 부족으로 佛語가 나올 때는 녹음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

벨기에 독일 핀란드 프랑스 영국 오스트리아 미국 등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자체 인원만 가지고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自由速記士를 고용한다. 그러나 고용할 速記士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우수한 速記士의 대부분은 이미 議會에 고용되어 있다. 특히 독일의 上院은 단지 1명의 正式速記士가 있으나 本會議가 매일 5

(표1)

## 조직과 인원

국명	조직과 인원	원수	속기과수	속기사수	기타인원	인원구성
Argentina		2	2	39	2	국장1, 국장보좌1, 조정관3, 고참속기사14, 속기사7, 수습속기사13
Australia		2	1	42	12	국장1, 국장보좌3, 에디타9, 속기사23, 수습속기사6, 타자수12
Belgium		2	2	27	16	국장1, 부국장2(불어, 독어), 편집인6(불3, 독3), 속기사18(불9, 독9), 타자수15, 비서1
Germany		2	2	23(하) 1(상)	20(하) 1(상)	국장1, 편집인6, 속기사12, 수습속기사4, 타자수17, (상원은 자유속기사 고용)
Finland		1	1	7	9	국장1, 부국장1, 속기사5(핀란드어4, 스웨덴어1) 타자수7
France		2	2	33(하)	8(하)	(하)국장1, 부국장2, 편집인10, 속기사20, 타자수4, 서기4
				23(상)	12(상)	(상)국장1, 부국장1, 편집인7, 속기사14, 타자수9, 서기3
Ghana		1	1	13	?	과장1, 과장보, 속기사11
Greece		1	1	27	16	국장1, 속기사26, 타자수12, 서기4
United Kingdom		2	2	36(하)	7(하)	국장1, 국장보1, 편집인6, 고참속기사10, 속기사14, 수습속기사4, 서기7(타자수 별도)
Ireland		2	1	19	?	국장1, 부국장2, 속기사16, 기타인원은 자유 계약
Canada		2	2	16	?	국장1, 부국장1, 편집1, 속기사13(영어9, 불어4)기타인원은 별도(영어과, 불어과로 분리운영)
Kenya		1	1	17	6	과장1, 편집인4, 속기사7, 수습속기사5, 비서2, 기사4
Korea		1	2	72	29	국장1, 과장2, 계장9, 속기사66, 편집인25, 기타
Netherlands		2	1	37	3	국장1, 부국장1, 조정관2, 속기사23, 수습속기사10, 서기3
Nigeria		2	2	36	?	국장1, 편집인11, 속기사24, (타자수 별도)
Norway		1	1	27	?	국장1, 편집인4, 속기사22
Austria		2	1	16	3	국장1, 부국장1, 속기사14, 서기2, 타자수1

국명	조직과 인원	원수	속기과수	속기사수	기타인원	인원구성
Pakistan		2	2	16(상) 12(상)	? ?	(하)과장1, 속기사15(영어7, Urdu8) (상)과장1, 속기사11(영어5, Urdu6)
Sweden		1	1	24	8	편집인4, 속기사16, 수습속기사4, 보조원3, 서기5
Switzerland		2	1	13	12	국장1, 속기사5(독4, 불1), 편집인(독3, 불4) (편집인7 모두 녹음번문사), 타자수10(독6, 불4) 서기2
South Africa				10	?	과장1, 계장1, 속기사8
U. S. A.		2	2	8(상) 8(하)	9 12	(상)장1, 속기사7, 번문사6, 서기2 (하)장1, 속기사7, 번문사8, 서기4

\*숫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시간 이상 8시간씩 열리므로 自由速記士를 고용해야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下院速記士들이다. 프랑스上院은 下院에서 보다 좋은 조건으로 自由速記士를 전부 고용해서 自由速記士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미국은 委員會의 기록을 거의 自由速記士에게 맡기고 있다.

### 3. 記錄方式

會議記錄을 어떠한 형태로 남기는가에 따라 그에 적절한 記錄方式을 채택할 수 있을 것이다.

會議記錄을 議事結果에 중점을 두고 日時 場所 參席者 議會結果 등 요점만을 기록하는 議事錄을 작성하는 정도라면 굳이 速記方式을 채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國家의 會議은 會議記錄을 남김에 있어서 議事錄에 만족치 않고 會議狀況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速記錄 형태로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速記錄 형태의 발행은 本會議나 委員會의 경우에 해당되고 小委員會 등 正式會議에 대비한 豫備會議性格의 會議은 굳이 速記錄이 필요치 않고 會議結果에 중점을 둔 要點記錄으로 충분할 것이므로 速記方式을 채택하지 않아도 무난할 것이다.

그러나 議事錄을 작성하는 경우라도 速記士의 공급에 문제가 없다면 速記方式으로 모든 議事內容을 기록한 다음 요점을 정리하여 議事錄을 작성하는 것이 정확하고 효과적인 것이다.

대부분의 國家에서는 手筆速記 方法을 택하고 있으며 그 중 상당수의 國家에서는 錄音을 速記補助로 사용하고 있다. 美國 캐나다 벨기에 오스트레일리아 이태리 영국에서는 手筆速記와 速記打字機가 並行使用되고 있으며 덴마크 유고슬라비아 케냐 남아프리카는 녹음에만 의존하고 있다. 일부 國家의 委員會 또는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會議의 경우는 녹음후 타자의 방법으로 會議

錄을 작성하나 이 경우에도 담당 타자수들은 어느 정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특수훈련을 받아야 하며 일반 타자수보다는 후한 급여를 보장받고 있다.

速記打字機를 이용하고 있는 國家 중에서 議會에서 CAT(Computer Aided Transcription) System을 사용하고 있는 國家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은 조사된 것이 없다.

(표2) 기록방식

국명	기록방식	수필속기	기계속기	녹 음
Argentina		0		0
Australia		0	0	0 보조용
Belgium		0	0	0 임의사용
Germany		0		0 보조용
Finland		0		0
France		0		하원0, 상원X
Ghana		0		X
Greece		0		0 보조용
United Kingdom		0	0	0 보조용
Ireland		0		0 Irish어용
Canada		0	0	0 확인용
Kenya		X		0
Korea		0	0	0 보조용
Netherlands		0		0 보조용
Nigeria		0		0 보조용

국명	기록방식	수필속기	기계속기	녹음
Norway		0		0 보조용
Austria		0		0 보조용
Pakistan		0		0 보조용
Sweden		0		0 보조용
Switzerland		0		0
South Africa		×		0
USA		0	0	×
Denmark		×		0
Yugoslavia		×		0

#### 4. 勤務狀態

##### 가. 速記時間 및 同時記錄人員

議會에서의 會議錄發刊은 보통의 경우 신속을 요하기 때문에 速記士가 기록하는 시간은 적은 분량으로 나누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짧게 잡고 있다. 速記士들은 모든 나라에서 交代制로 근무하고 있는데 5분 10분 15분 20분씩 쓰고 교대하며 즉시 翻文한 후 또 다음 차례를 위해 대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인의 速記士가 本會議의 경우 10분씩 교대하면서 근무하는데 밤과 낮, 會議內容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下院의 경우 1인이 3분간 기록하고 교대하며 上院에서는 2분마다

교대한다. 前者의 1인 이외에 보다 上級者 1인이 15분간씩 교대로 체류하면서 修正業務를 담당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2인의 速記士가 동시에 會議에 출석하여 速記하는 나라는 오스트리아 캐나다 인도(하원) 이태리(하원) 일본 네팔 스페인 영국 등이며 그중 캐나다에서는 1인은 英語로 나머지 1인은 佛語로 기록한다. 인도(하원)에서는 1인은 英語로 나머지 1인은 힌두어로 기록한다. 이태리(하원)에서는 2人中 1인은 정상적인 기록을 하고 나머지 1인은 중복되는 부분을 기록한다. 영국과 스페인에서는 10분간 체류하며 기록하는데 최초의 5분간은 記錄中인 동료 속기사를 협조하여 發言者 확인, 誤聽 가능성 있는 發言의 확

인, 議席發言, 同時2重發言 등에 대해서 도와주고 나머지 5분간은 다음 차례의 동료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기록하게 된다. 다만 質疑時間에는 兩者가 동시에 기록한다.

체코슬로바키아와 이집트에서는 4人, 벨기에와 스리랑카에서는 6人이 동시에 會議場에 체류하며 기록하는데 6人중 3人은 要約記錄者이며 체류시간은 1시간이다. 프랑스와 같이

修正責任者가 會議場에 체류하는 나라는 룩셈부르크 일본 벨기에 스리랑카 등이다. 일부 國家에서는 速記士 이외에 記錄局의 局長 編輯人 打字手까지도 會議場에 참관하여 自己業務에 예비하는 경우도 있으며 야간 또는 會議終了 30분전에는 速記時間을 절반으로 단축함으로써 會議錄發行에 신속을 기하는 나라도 있다. (表3)

(표3) 근무형태

국명	근무형태	속기인원	교대시간	번문시간	발행
Argentina			5분	1시간	?
Australia		1인(편집인1인)	10분	2.5시간	익일
Belgium		6인(중3인요약기록)	5분	2.5시간	15일
Germany			5분(하원) 10분(상원)	1.5시간(하원) 3시간(상원)	익일(하원) 4일(상원)
Finland			15분	1시간	2-3개월
France		1인(편집인1인)	3분(하원) 2분(상원)	2시간(하원) 1.5시간(상원)	6-24시간(하원) 당일 또는 익일(상)
Ghana			?	?	
Greece			5분	2시간	?
United Kindom		2인	10분	1.5시간	18시간
Ireland		1인	10분	1시간	3일
Canada		2인	10분	?	익일
Kenya			5-20분	?	3일 또는 6개월
Korea		2인	10분	2시간	익일
Netherlands		1인	5분	1.5시간	1.5주일
Nigeria			?	?	?

국명	근무형태	속기인원	교대시간	번문시간	발행
Norway			15분	2.5시간	익일
Austria		2인	10분	2시간	?
Pakistan			10분	2시간	?
Sweden			5분	4시간	익일
Switzerland			10분	3시간	6-8주일
South Africa			5-10분	1.5시간	매주
U. S. A		1인	5분(하원) 10분(상원)	30분(하원) 1시간(상원)	익일
India		2인(하원)1인(상원)	10분	?	
Israel		1인	10분	?	
Italia		2인(하원) 1인(상원)	10분(하원) 5분(상원)	?	
Japan		2인(감독관1인)	10분	2시간	
Nepal		2인	10분		
Spain		2인(편집인1인)	10분		

#### 나. 翻文

會議場에서 速記를 마치고 나온 速記士들은 일반적으로 타이피스트에게 직접 구술하여 주어 타자하게 한 후 자기 速記노트를 보고 수정한다. 케냐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등에서는 디타폰(Dictaphone 速度調節錄音器로서 速記用機械)을 사용하여 翻文打字한다. 디타폰을 사용하는 경우는 速記士가 디타폰에 구술녹음하면 즉시 타자수가 이를 타자한다. 미국에서는 機械速記士의 경우 速記士가

직접 디타폰에 구술녹음하기도 하고 매우 유능한 翻文職員은 速記士의 機械速記노트를 보고 직접 翻文打字한다.

錄音記錄國家인 핀란드의 경우는 녹음테이프를 타자수가 직접 翻文打字한 후 速記士가 자기 노트를 근거로 해서 교정보완한다. 오스트레일리아의 委員會 會議錄은 녹음테이프를 타자수가 직접 聽取 翻文打字한 후 인쇄한다.

速記士 자신이 직접 翻文에 종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日本 스리랑카 스랑스(하원) 인도  
화란 스페인 가나 노르웨이 파키스  
탄 등 극히 일부 國家뿐이다.

翻文所要時間은 速記時間의 5배  
내지 20배 이내이며 기록후 1시간 내  
지 2시간 이내에 翻文이 완료되도록  
대부분의 國家가 기록시간과 인원배  
치를 하고 있다.(表3)

速記士가 속기한 후 翻文을 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투리나 뜻이 없  
는 發音까지도 그대로 文字化하기  
보다는 읽기 쉽게 하기 위하여 文法  
에 맞게 띄어쓰고 구두점을 찍고 문  
장을 가다듬어서 적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의식적인 것이거나 발언자의  
특색이라 할 수 있는 사투리까지 표  
준어로 고쳐서는 안된다.

발언자가 무의식중에 나타내는 文  
法上の 오류나 말끝을 흐린 경우 그  
대로 文字化하기 보다는 수정을 해  
도 만족할수 있는 경우 또는 수정하  
지 않으면 速記 자체의 기술을 의심  
받을 듯한 경우 등에는 수정도 하고  
말끝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 발언자  
에 대해서 친절을 베푸는 결과가 된  
다.

速記가 음성에 의한 언어표현을  
文字化시켜 의사전달 하는 매개로서  
존재가치가 있는 이상 發言者의 무  
의식적인 오류를 수정하여 올바른

의사전달을 꾀한다는 의미에서도 速  
記士의 修正翻文은 충분히 그 근거  
가 있다 하겠으나 그 한계가 모호하  
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英國의 경우 1909年 이래로 議會  
速記士는 翻文함에 있어서 오랜 전  
통을 지켜오고 있다. 그들은 자연적  
인 演說을 손상시켰다는 비난을 받  
지 않으려고 행동한다. 本會議 發言  
은 委員會 發言보다 덜 修文된다.  
그러나 調查委員會의 경우는 예외이  
다. 調查委員會는 더 사실적이기 위  
해 더욱 절대적인 逐語速記의 原則  
이 주어진다.

그들은 修文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그러나 가능한 한 적게 修文되  
어져야 한다는 原則을 지켜오고 있  
다.

오스트리아 議會速記士들도 가능  
한 많이 發言者의 연설은 그가 표현  
하고자 원하는 방향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이러한 원칙을 고  
수하는 한편 文法的인 校正, 표현의  
실수, 숫자와 引用文의 점검, 논쟁  
의 원인이 되지 않을 잘못된 표현의  
校正, 부분적인 사투리의 標準語 표  
기 등은 速記士의 재량으로 인정하  
고 있다.

#### 다. 編輯·印刷·發行

會議錄의 編輯業務는 會議錄의 體制 즉 版形이라든지 글자체 크기등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會議錄 發行時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會議錄의 編輯 그 자체보다는 校正 修正 削除 議事內容 이외의 게재사항의 수록등이 주가 되겠다.

호주 캐나다 스리랑카 인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태리 룩셈부르크 화란 스페인 이집트 영국에서는 速記士들이 중복된 말을 정정하고 삭제하는 등 發刊에 적합하도록 編輯한다. 速記士의 손을 떠난 원고는 미완성인 채로 편집진으로 넘어가 한번 더 校正된다. 이 경우의 編輯陣은 거의 상급자들이며 古參速記士들이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編輯 및 校正者들에 의하여 編輯業務가 행하여진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速記士의 藪文原稿를 編輯 校正하기 위한 별도의 직원을 고용하며 이들은 會議에 참관하여 내용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한다. 이 경우의 編輯人들은 전직 速記士이다.

編輯이 완료된 원고는 인쇄에 불

여지는데 빨리 인쇄하기 위해서 컴퓨터植字로 변경되어 가고 있다. 몇몇 國家에서는 Word processor를 사용함으로써 효과를 보고 있다.

印刷發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校正을 위해 주어진 시간과 校正員數 또는 編輯者들의 數에 의해서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이것들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이며 會議錄이 언제 필요한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議員이나 언론기관이나 국민에게 어느정도 빨리 會議記錄을 공개하는가에 따라서 會議錄 發行時間이 결정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프랑스 이스라엘 등 많은 나라에서 會議進行중에도 會議錄 發行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며 빠른 나라에서는 會議當日에도 會議錄이 인쇄되어 배포된다.

會議錄의 發行目的중의 하나가 議會에서 일어났던 사실에 관하여 議員과 언론기관 관계행정기관 등 이해당사자를 비롯한 관심있는 국민들에게 신속히 공개하는 데 있으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會議 다음 날까지 會議錄을 발행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캐나다 노르웨이 영국 프랑스 호주 독일 스웨덴 미국 등이며 會議 數日 후에 발

행하는 나라는 일본 아일랜드 몰타 스페인 등이고 會議 數週日 후에 발행하는 나라는 스위스 요르단 리히텐슈타인 벨기에 화란 남아공화국 등이며 各 會期가 종료된 후에 발행하는 나라는 동독 소련 방글라데시 카메룬 핀란드 케냐 스위스 등이다. (表3)

## 5. 業務量

### 가. 本會議

어느나라의 國會에서나 本會議가 가장 중요하여 速記課의 업무도 가장 우선순위를 本會議에 두고 있으며 逐語速記를 하고 있다.

나라마다 定期國會의 會期가 일정

치 않고 또한 定期國會時 本會議 運營方式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적절치는 못하나 定期國會 會期中 本會議 日數는 평균 110日이다. 또한 1日 會議時間도 나라마다 다르나 대략적으로 평균 發言時間은 약 5시간이다. 몇몇 나라에서는 단지 한두 시간에 끝나나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30시간 50시간 혹은 더 많은 시간 會議가 계속된다. 10시간 이상 會議를 갖는 나라도 많이 있다.

1次 會議分 평균 會議錄의 페이지 수는 會議錄의 크기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議事內容 뿐만 아니라 기타 게재물의 분량에 따라 차이가 많다.

(表4)

(표4)

### 업무량

국명	업무량	총본회의 일 수	총본회의 시간	평균회의시간	야간회의여부	회의록Page(규격)
Argentina(하) (상)		62 52	264	2-4, 가끔 8이상	20시이후 32% 20시이후 65%	3,000p(27×19.5cm)
Australia		66	704	9-14	매일	(25×17.5cm)
Belgium(상)		96	433	4	25%	3,000p(33×23.5cm)
Germany(하) (상)		68 13	430 38	10시간이상 30% 2-3	30% ×	6,000p(21×29.7cm) 600p(21×19.7cm)
Finland		119	424	2-3	30%	3,500p(20×26.5cm)

국명	업무량	총본회의 일 수	총본회의 시 간	평균회의시간	야간회의여부	회의록Page(규격)
France(하)		111	766	3,1/2	자주	4,500p(24×32.5cm)
(상)		119	425	다양함	30%	6,500p(24×32.5cm)
Greece		151	900	6	매일	6,000p(30.5×23.5cm)
United Kingdom		185	1,300	7, 연중 사오차례 자정넘어 35시간 가 장긴것 57.5시간	자주	(24.5×16cm)
Ireland(하)		85	680	7-11	20시이후2/3	(23×15cm)
(상)		38	230	6	×	
Kenya		89	360	4	×	4,500p(28.5×20.5cm)
Korea		18	43.5	2.5	자주	550p(26.3×19cm)
Netherland(하)		106	1,051	10-13	20시이후3/4	6,500p(27.1×19.8cm)
(상)		34	193		20시이후1/4	1,500p(27.1×19.8cm)
Nigeria		181	?	?	×	3,500p( ? )
Norway		166	500	4-5	20%	5,000p(27.1×19cm)
Austria(하)		40	?	12-16	거의 매일	3,000p(29.4×20.9cm)
(상)		10	70		때대로 자정넘음	
Pakistan		3-4개월	?	4-5	?	?
Sweden		170	600	2-6	가끔 수요일	10,500p(24.2×16.5cm)
Switzerland		101	330	?	×	1,800p(29.5×20.5cm)
South Africa		85	441	2.5-6	가끔 수요일	9,000p(20.8×14.6cm)
U.S. A(하)		160	900	1-12 다양함	자주. 최근 3년중 가장 긴 회의 32시 간	? (27.9×21.3cm)
Canada		160	928	4-6	20시이후 50%	(26.5×20.5cm)

\*숫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나. 委員會

대부분의 國家에서는 本會議에서 逐語速記로 會議錄을 발행하는 의에

委員會에서도 逐語速記錄을 발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서독 스위스 등에서는 委員會 速記

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영국 등에서는 委員會 記錄을 速記課에서 담당하지 않고 特別課에서 담당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동시에 두 委員會 또는 더 많은 委員會를 速記하고 있으며 때로는 兩院이 동시에 開議되는 경우도 있다.(表5)

(표5) 본회의외의 속기상황과 업무량의 추세 및 전망

국명	회수	시간	동시기록	추세	전망
Argentina	64	100	몇개의 법률소위	×	×
Australia			양원	증가(위원회중설)	증가
Belgium			×	×	×
Germany(하)	150	600	본회의와 위원회	증가(위원회, 청문회)	증가
(상)	10	25	5-10개 위원회		
Finland			×	×	×
France(하)	?	275	×	증가(일의 어려움)	증가
(상)	87	?	본회의중 위원회	증가(고속발언)	증가
Greece	70	?	위원회	증가('74년대 비배증)	증가(의회의 새로운 역할 중대)
United Kindom			×	증가	증가
Ireland	29	10	0	증가(위원회 업무)	
Canada	1-2	10	×	×	×
Kenya	150	180	×	×	증가(위원회토의)
Korea	250	900	위원회	증가(위원회, 청문회)	증가
Netherlands	66	441		증가(본회의 및 위원회수증가)	증가(본회의업무 위원회로 세분)
Nigeria			2개위원회	증가(정부기능의 증가)	증가

국명	회수	시간	동시기록	추세	전망
Norway			양원	X	X
Austria			양원, 위원회	증가(위원회 증가)	증가(부대업무증가)
Pakistan	30	120	X	X	증가(의회기능증대)
Sweden	20	20	X	증가(회의일수증가)	증가
Switzerland	120	600	위원회	증가	증가
South Africa			X	X	X
U. S. A	?	40	X	X	X

#### 다. 業務量의 추세및 전망

최근 수년간 거의 모든 나라에서 速記課의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는 경향이며 앞으로도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로 첫째, 委員會 기록의 逐語速記化 경향 둘째, 聽聞會의 增加 셋째, 發言時間 制限에 따른 發言速度의 高速化 傾向 넷째, 새로운 委員會의 신설 등 議會機能의 증가를 들고 있다. (表5)

#### 라. 餘他業務

일반적으로 速記課의 업무는 本會議과 委員會의 會議錄을 발행하기 위한 速記 翻文 編輯 校正 印刷의외 發刊 配布 등이다. 여기에 參考文書 掲載 附錄發刊 등이 따른다.

이 이외에 速記課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중 중요한 것으로 신입 속기직원의 양성과 훈련을 들 수 있다. 速記士양성을 위하여 議會內에 速記課와 별개의 기관을 두고 있는 나라도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速記課 소속기관으로 두어 양성하는 나라도 있다. 그러나 신입직원의 훈련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速記課 古參速記士가 담당한다.

스웨덴의 速記課에서는 國會會議를 速記하지 않는 다른 시간에는 情報課에서 다른 업무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議會 관리하의 다른 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裁量權이 있다.

프랑스 영국 이태리 오스트리아의 議會速記士들은 이들 國家들의 모임

인 서유럽연합회의 會議가 파리 런던 로마 빈 등에서 열릴 때 동원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速記業務 이외에 議會 新聞의 발간을 담당한다. 스위스의 速記課員은 때때로 委員會 비서업무도 담당한다. 그런가 하면 공식적인 速記業務가 없는 경우 출근할 것이 강요되지 않는 나라도 있다.

또한 공식적인 속기업무가 없는

기간 중 速記士들이 自由速記業을 하도록 허용하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이는 議會 速記士가 각 나라마다 가장 유능하며 또한 이들이 정당이나 다른 기관들의 요구에 의해서 自由速記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경험과 지식이 國會 안에서의 업무수행에 커다란 이점이 되기 때문이다.

(外國語部 제공)



## 근시안

지독한 근시안을 가진 사나이가 문설주에 못끝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는 파리가 앉아 있는 줄 알고 손바닥으로 후려쳤겠다.

따끔하게 질린 그 친구,

「파린 줄 알았더니 벌이었군.」

“詩”

## 漁夫이야기

張 淑 卿

삼년동안  
밤바다 섬에서 풀린 내 눈물이  
南海만큼 넓어  
검은 바닷말로 전신을 덮는다면  
시름시름 앓다 밝히는  
集魚燈의 찬란한 꽃 바라보며 선착장처럼 누워 출렁이리.  
건착망 어선 그늘 아래 고층 아파트의  
불빛 깜박이고 셀로판지 사이로 마주 보인다.  
해미 긴 섬의 溫室이 땅도  
하늘도 없고  
燈臺도 산호꽃 냄새도 없이 오직  
喪服 입고 표류하며 바람을 일으킨다.

바람 높아 모든 것을 흔들리게 하여 失踪케 하라.  
滿船의 깃발이 되어 하늘을  
휘어이 휘어이 너울 일으켜  
키를 키워  
공동묘지 끝 강여의 파도를 넘어  
마라도 서남방 삼십이마일 그곳에서  
당기는 魚網으로 나의 섬을 나포하여 사라진다. 다시,  
月明의 때에  
갯바람 부딪쳐 잔내 나는 가슴 여미며  
등등 떠 있는 섬의  
浦口에서  
웃둥무들이 돌아 올 船團을, 아침 소식을  
기다린다.



## 더불어 사는 世上

조미경

삶의 과정을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다듬어 나가는 精進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우리 生涯는 그 시각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의 내 생활에 安住하려는 타성에 젖어들다가도 어쩌다 내 의식의 밑바닥에서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도전력에 밀려 적당한 現在를 拒否하게 만들고 속수무책으로 삶을 낭비하고나 있지 않나 하는 심한 비애감에 빠지기도 한다.

가끔씩 손바닥을 쳐다본다.

어쩔 수 없는 生의 흐름이 그어져 버린 내 절뚝거리는 곡선이며 끝잘린 사선 굵이굵이 휘돌아가는 실같은 線들이 이미 얼마큼 지나온 내 삶을 얼마나 지배하고 있는지를.

그저 미신처럼 여겨지는 작은 일에는 신경 곤두세우면서도 정작 애쓰고 힘써야 할 것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살다가 때로 힘들고 좌절할 때 손금 때문이라는 핑계거리로나 만들고

있지 않았는지.

날 때부터 규정지어진 궤적같은 하나의 線에 집착하면서 내 삶을 방관하고 있거나 않은지를.

부서버려라

어차피 人生은 발전의지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

\* \* \* \*

비합리적인 것을 알면서도 침묵으로 또 한 해를 보냈다.

感情이 理智를 압도해 버려 커다란 구멍으로 실수도 만들어 놓았다.

어리석기에 늘상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우울중에 빠지기도 했다.

젊기 때문에 그 무엇에도 무릎 꿇고자 원치 않았지만 사실은 젊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았고 그래서 망설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술한 시행착오와 그로 인한 고통 때문에 차라리 선택의 상황이 두렵기조차 했다.

단순히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움직여야 한다.

\* \* \* \*

오랜만에 흡족한 눈이 내렸다.  
都市 곳곳에 교통이 마비되었다는 사실은 까마득히 잊은 채 雪景을 바라보고만 있자니 흡족한 감동이 내 가슴에 고루고루 스며들었다.

그러다가 문득 마치 얼빠진 귀머거리, 억세게도 고집센 병어리마냥, 아니 하얀 석고상처럼 머리 속이 텅 비어 버렸다. 추운 날, 빨갛게 달아올랐던 맨 손 맨 발을 내게 보인 <그 아이>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주일학교를 몇 주째 빠지고 안 나오는 <그 아이>를 찾아 갔을 때 “선생님! 우리 아빠 산소에 파묻었다” 너무도 천연덕스럽게 말하던 <그 아이>. 그 목소리가 내 귀에 쟁쟁하게 울려왔다.

언제나 핏기 가신 얼굴로 손바닥만한 아랫목에 누워만 있었던 <그 아이>의 아버지.

‘죽음’이 ‘죽음’으로 다가오지 않았던 <그 아이>의 맹랑함이 나를 슬프게 만든다.

줄줄이 어린 것 넷만을 덜렁 남겨 놓고 먼저간 지아비를 원망할 새도 없이 삶을 위해 노동을 해야만 했던 이제 갓서른의 <그 아이>의 엄마.

피투성이가 되도록 삶을 부둥켜 안고 날마다 일어서려 하던 <그 아이>의 젊은 엄마.

새벽을 열고 나가면 어둠이 내려

야 돌아올 수 있었던 그녀의 환경은 어린것에게 따뜻한 보살핌 한번 주지 못한 힘겨운 현실이었다.

그 후 그들은 밀린 월세를 감당 못해 이사를 했고 물어물어 찾아간 집에서 나를 반기는 건 덩그마니 반찬도 없이 마른 밥만 퍼 먹고 있는 <그 아이>의 네살박이 동생이었다. 나를 뻐꼼이 쳐다보던, 결코 아기같지 않던 표정. 그건 차라리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다.

적당한 가난은 人間을 자유롭게 한다는데 그들의 찢어지는 가난은 숨쉬기조차 힘들 만큼의 처절 그것이었다.

\* \* \* \*

잊고 산 게 너무 많다.

어쩌다 몇년씩 그들을 잊고 있었을까?

다탁 위에 성냥개비 쌓아 올리는 그런 환상만드는 작업에 열중하다가 내 이웃을 잊었었다.

내 외로움만 불편해 했지 <그 아이>의 외로움은 제도 탓으로 돌린 감도 없지 않았다.

내가 누군가의 머리 속에 남는 것만 중요했지. 정작 내가 記憶해야 할 것은 잊고 있었다.

내 표정만을 고집해서 이제 길어야 몇십년 더 사는 世上을 보다 <나>답게 살고 싶어만 했지, 내 이웃의

표정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한번쯤 돌아보면서 살자.

분노해야 할 것에는 짐승처럼 서럽게 울면서 분노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것에는 뜨거운 눈물로 감사하자.

떠나 보내고 새로이 만나는 일들이 쉽게 행해지는 세상이라도 남아 있는 것을 다독거리는데 소홀하지 말자.

언젠가 내 목숨의 끈을 놓아야 할 그 즈음에 가진 것 다 놓고도 웃으며 감사하며 조용히 흥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날마다 죽음을 연습하자.

그리고 양심은 자유해야 한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지만 오늘에 충실해야 한다. 더불어 사는 이 세상의 창조적 소수가 되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도 나를 심히 사랑하시는 <당신>의 허락없이 어느 누구도 나를 실패자로 만들 수 없다는 이 커다란 사랑에 뜨겁게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소서.



# 속기계 이모저모

1988. 3—1990. 4

섭외부

## ○승진

- 이동일회원 : 이사관(현내무위원회 입법심의회관) (88. 8. 22)  
김영선회원 : 부이사관(현특별위원회 입법심의회관) (88. 8. 22)  
강중원회원 : 서기관(현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88. 8. 22)  
김기영회원 : 서기관(현자료편찬과장) (88. 8. 22)  
최광수회원 : 서기관(현위원과장) (88. 8. 22)  
황인하회원 : 서기관(현교통체신위원회 입법조사관) (88. 8. 22)  
염덕훈회원 : 속기사무관(88. 10. 25)  
강서홍회원 : 서기관(현속기 2과장) (89. 3. 21)

## ○표창

- 유지영·윤병직회원 : 대통령표창(88. 5. 31)  
이동일회원 : 국회의장표창(88. 5. 31)  
최예숙·김학순·손재욱·김난희·이경식·이주성·박기만회원 : 국회사무총장상(89. 1. 4)  
유지영회원 : 근정포장(89. 6. 30)  
김진기회원 : 의장표창(89. 12. 31)  
김경만회원 : 대통령표창(90. 1. 3)  
신희동회원 : 국회의장표창(90. 1. 3)  
김창진·최성주·김재학·안순희·박치명·이연희회원 : 국회사무총장 표창(90. 1. 3)

## ○전출

- 이태호회원 : 불교방송국으로.

---

조정구회원 : 노동부로(90. 4. 10)  
조대성회원 : 국무회의실로(90. 5. 19)

### ○복직

김진기회원 : 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89. 6. 2)  
서만복 · 한종렬 · 고용번 · 김경중 · 김은숙회원 : 국회사무처 속기과(89. 6. 2)  
고석광회원 : 국회사무처 속기과(89. 6. 20)

### ○퇴직

박인혜회원 : 퇴직(88. 7. 3)  
윤상운회원 : 퇴직(89. 6. 7)  
유지영회원 : 정년퇴직(89. 6. 30)  
김진기회원 : 정년퇴직(89. 12. 31)

### ○발령

권용미 · 김정아회원(88. 5. 20)  
간찬기 · 김은숙 · 김철호 · 이규진회원(88. 8. 1)  
강은실 · 김영중 · 문선희 · 서명순 · 송동우 · 이덕경 · 이동준 · 이재인 · 이한경 · 이현실 · 정소희 · 조미경회원(88. 10. 10)  
이미정 · 조대성 · 조선욱회원(89. 4. 1)  
김미라 · 김수복 · 백순정 · 신연희 · 엄의숙 · 황은화회원(90. 5. 1)  
김기선회원(90. 5. 19)

### ○협회 임원 개선

1989년 2월 13일 제 22회 정기총회 및 7월 4일 제 144차 이사회에서 새 집행부 구성.

이사장 : 김인영

이 사 : 신세화, 황인하, 이강현, 이승철(총무), 조우석(섭외), 김기영(외국

어), 유지영(연구 및 자격심사위원장 겸)

감 사 : 김영춘, 고태중

총무부장 : 안기철, 사업부장 : 이주성

섭외부장 : 조영기, 외국어부장 : 이정구

연구 및 자격심사위원회 간사 : 이준태

속기계편집위원 : 양진숙

### ○동방 속기법식 창안 및 학원개원 40주년 기념식

1988년 2월 22일 '만석코(한식점)'에서 동방속기학원주최로 동방속기법식 창안자 이동근 선생과 여러 속기계 원로를 모시고 동방속기 가족들이 모여 동방속기법식 창안 및 학원개원 40주년 기념식 거행.

## 지갑이 있어야

한 신사가 지나가는 것을 본 저지 녀석이 뒤를 따라가,  
「저, 신사 아저씨. 지갑을 떨어뜨리지 않으셨습니까?」라고 물었다.

그 신사는 황급히 포켓에서 지갑을 꺼내들고,  
「아니, 내 지갑은 여깁어.」  
「그러면 한푼만 적선하십시오.」



—알립니다—

○속기인 주소록 발간

1985년에 발간한 바 있는 속기인주소록을 수정, 보완할 예정이오니 주소 및 연락처(전화)의 변경이 있는 회원은 섭외부(788-2474조영기, 788-2476 양진숙)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납입 안내

회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우편대체구좌를 마련했사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보낼곳 : 우체국 온라인 011700-0003943(안기철)(회비 1년분 : 12,000원)

원 고 모 집

회원 여러분의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상호간의 유대와 속기연구 발표의 창구 노릇을 함으로써 속기문화에 기여코자 함이 본회지의 발간취지인만큼 여러분의 어떠한 투고도 환영합니다.

☆보내실 곳 : 본협회 섭외부(국회속기과) Tel. 788-2474

- ◇표지그림·사진.....가로15cm 세로 11cm정도
- ◇연구논문..... 200자원고지 20~40매
- ◇속기실무..... 200자원고지 15~25매
- ◇회 상 기..... 200자원고지 15~25매
- ◇수 필..... 200자원고지 15~25매
- ◇시, 시조, 산문, 기타 제언 등

※채택된 원고에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편집후기



♣ 자꾸만 어깨가 무거워진다.

떠밀려난 원고의 페이지 무게만큼, 원고에 바쳐진 세월만큼 어깨를 짓눌러 당초의 오기(?)는 빛을 잃고 그저 부끄럽기만 하다. 땀에는 무척 애쓴 것 같은데 아쉬움만 가슴에 가득한 채 무작정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만 싶다.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달라”는 심정으로 속기계를 계속 사랑해 주십사 억지 부탁을 드려본다.

—琦—

♣ 시험을 코앞에 두고서야 벼락치기 공부하던 오랜 습관탓일까? 어떻게 어떻게 하다보니 많은 날들이 그냥 지나가버리고 뒤늦게 며칠동안 요란을 떨었다.

다음번 시험은 꼭 미리미리 공부해 놓으리라던 학창시절의 다짐처럼 다음번 속기계는 보다 푸짐하게 꾸미리라는 허황(?)된 결심을 해 본다.

—仲—

## 회 무 일 지

-1988년도-

- 1. 11~1. 30 제41회 동계 속기강습
- 1. 23 제138차 이사회
- 2. 9 제21회 정기총회
- 2. 17 제139차 이사회  
속기계 제28호 발간
- 4. 12 제140차 이사회
- 7. 14 제141차 이사회
- 8. 1~8. 20 제42회 하계 속기강습
- 12. 29 제142차 이사회

-1989년도-

- 1. 9~1. 30 제43회 동계 속기강습
- 2. 1 제143차 이사회
- 2. 13 제22회 정기총회
- 7. 4 제144차 이사회
- 7. 15~7. 21 제38차 국제속기타자연맹총회참석  
(동독, 드레스덴)
- 7. 18~8. 5 제44회 하계 속기강습
- 12. 27 제145차 이사회

# 속 기

- ◎ 고졸이상 남·녀(연령불문)
- ◎ 국회사무처 각행정부처 언론보도기관 상장대기업체 등 진출
- ◎ 국가자격시험 및 지방의회 대비반 모집
- ◎ 각종회의록 작성 및 녹음테이프 재생 전문
- ◎ 성적우수자는 취업 및 부업 우선 알선
- ◎ 연4회 장학제도
- ◎ 통학권 발급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 후원—



관인

## 안정근 속기학원

(舊 고려속기 교육학원)

☎679-7114. 7115

영등포시장 로타리 정면 영창피아노 4층

# 속기사이미정사무소

- 법정용 테이프 녹취
- 주주총회 및 각종회의록 작성

# 대한속기 교습소

- 46년 창안된 정통 고려속기 교육
- 개강 : 매주월요일
- 깨끗한 교육환경과 편리한 교통
- 개인별 성실한 책임지도

## 각종특전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거나 성적이 우수한 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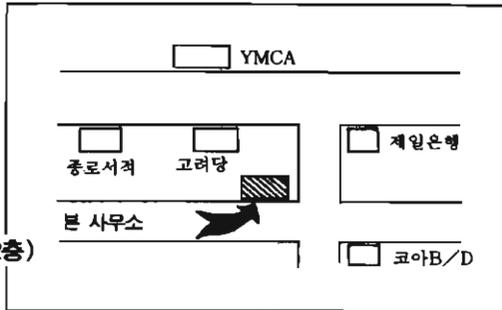
- 1) 각종부업알선(시간당 10~13만원)
- 2) 수강료 혜택(30%~100% 면제)

# 입학상담소

732-4029

서울 종로구 관철동 18-1  
(입석빌딩 2층)

(종로2가 고려당뒤 스마일관광 2층)





## 속기계 창간30주년

속기의 보급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히** 한국속기학원  
한국고려속기합동사무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18-8

568-7704, 555-4594

인천시 북구 부평1동 529-24

(032) 525-0002

---

속 기 계

제29호

---

1990년 6월 일 발행

발행인: 박 권 흠

편집인: 조 우 석

---

사 단 대 한 속 기 협 회  
법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여의도동 1-1

Tel : 788-2471~6

---

(비매품)

## 東邦의 序詩

산허리를 휘감은 새벽  
긴자락의 옷소매 같은 들녘에서  
쟁기를 몰며 아침을 벗겨 나갑니다.

일귀농은 밭고랑 고랑들 사이속으로  
햇빛이 부서져 내릴 시간이면  
네살박이의 아침식사를 알리는 메아리에  
잠자고 있던 미루나무와 온통의 산들이  
아침을 털어 냅니다.

한해 한해 일귀농은 고랑들 사이에서  
모두들 용솟음쳐 오르는 얼굴들은  
조그마했던 처음이 이제 가를 수 없는  
산이 되고 들녘이 되어 산골을 타고 내려오는  
징소리와 북소리들과의 어울거림으로  
재너머 옥이네 환갑잔치만큼이나 더  
풍요롭습니다.

쟁기와 저녁을 지계에 쟁여지고  
돌아오는 방죽길에서 내일도 일귀야 할  
고랑들의 기다림에 42년 동안  
밭가는 일밖엔 모르는 철이 아버지는  
돌아올 새날의 여명을 기다리며  
지계춤을 한번 더 추슬러 봅니다.

### 동방속기학원

종로 765-4266

청량 965-8222

남영 701-8222

수원 46-4944

부천 665-9634

---

## 속기사의 신조

1. 우리는 들은대로 기록하고 보태거나 빼지  
아니한다.

1. 우리는 번문한 원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 우리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일체 누설  
하지 아니한다.

---